

AD



가

헬스뉴스

이명...용하다
!에 가도 잘 낮
!는 진짜 이유

인천 인천사회

...

인천지역 지자체 예식사업, 이용객 감소로 ‘유명무실’

승인 2016-06-14 1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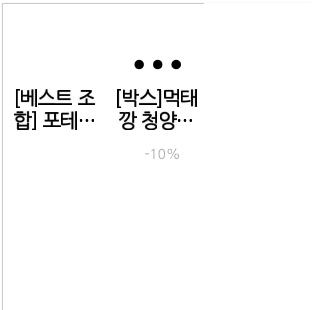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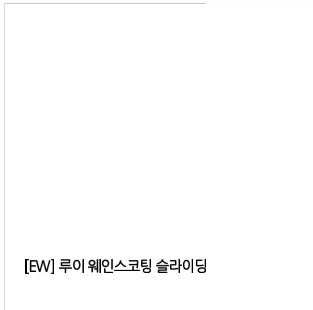


박연선 기자 jsun@kyeonggi.com
[기자페이지 >](#)

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웨딩홀 제공 등 예식 서비스 이용객이 급감, 서비스의 다양화 추진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4일 인천시와 군·구 등에 따르면 계양·부평·연수구는 주민의 복지 수준 향상과 편의 제공을 위해 청사를 대관해 예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유행처럼 번지던 10여 년 전과 달리 최근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계양구는 지난 2013년 청사 내 300㎡ 면적에 100석 규모의 예식 공간을 마련, 관련 업체에 사업을 위탁했지만, 이용객이 점점 줄어 지난해 16건에서 올해 5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2006년 대강당을 대관해 예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연수구 역시 수년간 실적도 전혀 없었으며, 올해 현재까지 대관 횟수는 1건이 전부다.

부평구도 주민들이 예식을 올릴 수 있도록 대회의실을 대관하고 있지만, 매년 1건의 예식이 진행될 뿐이다.

이처럼 주민들이 경제적인 예식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고 추진된 예식 사업이 제구실하지 못하면서, 서비스 다양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이 시작된 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이 지났지만, 장소 제공 이외에 별다른 서비스도 없는데다, 이용객이 줄어드는데도 지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뾰족한 개선책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 관점에서 준비돼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데, 참여가 적다는 건 제도가 완전하지 않다

메디헬스뉴스

콧속 이명...용하
는 곳에 가도 잘
지 않는 진짜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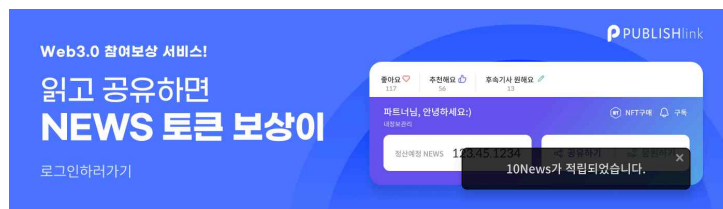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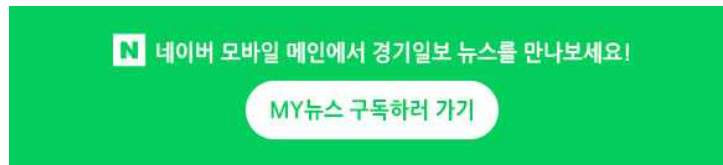
양화, 특색화 전략 등을 개발해 주민들이 웨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식 서비스는 소박한 예식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검소한 예식문화를 확산하고, 취지에 맞게 보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연선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0

댓글 운영규정

회원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해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기에서는 사용 후 로그아웃 해주세요.

0 / 400



로봇이 아닙니다.

reCAPTCHA
개인정보 보호 - 약관

등록



최신순 추천순

우리지역 추천뉴스



[새빛수원] 서수원 문화일번지 **제14회 화성 뱃놀이 축제, 25만** **부천시 ‘도심 속 피서’…남부수**
‘빛누리아트홀’ 개관…문화와… **여명 참여 속 성료** **자원생태공원 물놀이장 개방**

경기 광주시, 수요응답형 **교통체** **제14회 의병의 날 기념행사, 연** **구리시, 서울편입·스마트그린시**
계 ‘광주시 독버스’ 개통 **천군서 열려... 경기도 최초** **티 등 이슈 부상 [핫이슈]**